

주간기도정보

2024. 10. 29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짐이라”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서울 도심 뒤덮은 기도 물결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창조질서를 무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유언이 되게하시고, 다음세대들에게 회개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되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대한민국이 기도 소리로 뒤덮인 하루였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27일 서울 시청광장과 광화문,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됐다. ‘건강한 가정, 기록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예배에는 전국서 11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첫 설교자로 강단에 오른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는 동성혼 합법화를 막을 골든타임이라며 전심으로 회개하자고 권면했다. 박 목사는 “이 시대에 악이 가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성경에 근거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재 우리들교회 목사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야 한다”면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한국이 살아난다. 창조질서를 위배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고, 태아 생명을 지키는 법이 제정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예배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 독일 등의 상황도 전해졌다. 브라이언 채플 미국장로교회(PCA) 대표,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 크리스천컨선 대표, 하인리히 덕센 독일 본 대학교 총장은 “반성경적 사조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만큼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교회의 요구가 담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000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이 발표됐다. ▲동성결합을 인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 지침 즉각 개정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허용하거나 동성결합 합법화의 길을 여는 판결 금지▲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금법 등 악법 제정 금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초·중등 교과서 내용 삭제 등이다.

선언문을 낭독한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오염과 생명경시로 인해 가정과 다음세대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기적의 나라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선포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큰 기도회에서는 동성애, 낙태, 한국교회의 죄악 등을 회개하며 다음세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뜨겁게 부르짖으며 이 땅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간구했다.

이날 직접 현장에 오지 못한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 중인 해외 동포 양모 씨(28)는 “주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속한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일만큼 해외 상황은 심각하다”면서 “우리나라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온라인 중계를 통해 함께 기도했다”고 전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디모데전서 4:5-6)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역대하 7:14-15)

하나님, 10.27 연합예배에 온 한국교회가 거리로 나와 함께 모여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도록 간구하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의 우상을 따랐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죄악이 법률로 보호받고 경건함이 처벌받는 불의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통로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세대를 반성경적 사조에서 지켜내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도록 힘쓰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깃발을 높이드는 한국교회를 통해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뤄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중국 파견 북 노동자 수백 명 결핵 등 발병

소환 대상은 대부분 소생할 가망이 희박한 환자들...



북한 당국이 최근 결핵과 폐암 등 심각한 질병에 걸린 중국 파견 노동자들 수백 명을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결핵, 폐암, 간암,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 이들의 조속한 북한 귀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다.

중국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22일 “어제(21일) 북조선 노동자 250명이 단동 세관을 통해 귀국했다”면서 “현재 철수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대상들”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이달 소환된 북조선 노동자들 대부분이 6년을 넘긴 파견 노동자들”이라면서 “그들은 북한 당국의 지시로 여권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집단으로 생활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불가피하게 소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조선 노동자들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단연 결핵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소식통은 “전염성이 강한 급성결핵(슈퍼결핵)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과 폐암과 간암으로 치료가 시급한 노동자들이 요즘 소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웬일인지 중국 세관 측이 북조선 소환 대상에 대한 건강검진증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경우 세관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중국 측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중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 지시를 받은 북한 회사들에서는 자체로 노동자들의 체온 정도만을 잴 후 무조건 ‘정상’이라는 건강검진 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국 단동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20일 “이달 14일(252명)과 21일(250명) 2차례에 걸쳐 500명가량의 파견 노동자들이 북조선으로 소환됐다”면서 “소환대상은 대부분 소생할 가망이 희박한 환자들”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북조선 노동자들은 파견된 지 6-7년 동안 높은 담장이 둘러쳐진 공장 내부에 갇혀 일했다”면서 “비록 20대, 30대의 젊은 나이라고 해도 비위생적인 환경과 과도한 생산과제에 내몰리면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북조선 노동자들 속에서 결핵환자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정부는 열이 나면 세관을 통과할 수 없게 통제를 강화한다는 움직임”이라면서 하지만 “북조선 회사에서는 고열에 피를 토하는 노동자들도 ‘정상’이라며 소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어 “폐결핵, 간암, 폐암 등으로 생산현장에 나갈 수 없어 소환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회사로부터 ‘정상’이라는 건강검진증을 발급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병에 걸려 소환되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시편107:19-21)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립보서 2:9-11)

하나님, 중국에서 감옥과 같은 공장에 갇혀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인생을 착취당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몸으로 북한에 소환되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조작하는 회사와 주민들을 외화벌이로 이용하는 북한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이들의 모든 멍에를 꺾어 주소서. 본국에 돌아가도 정부의 특별한 처우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소생시킬 단 하나의 소망은 여호와 라파,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북한에 계시하여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중·고 기숙사 학폭 심의 4년 연속 증가...“방과 후에도 한 공간, 더 심각”

정성국 ‘기숙학교 위한 피해자 보호 매뉴얼 시급’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지난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숙사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돼 대책을 주문하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운영 국·공립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0-2023년 4년 동안 총 565건이 심의를 받았다.

해당 기간 고등학교에서 총 499건(88.3%)이 발생했고 중학교에서는 66건(11.7%)이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0년 107건을 시작으로 ▲2021년 112건 ▲2022년

157건 ▲2023년 189건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중학교는 ▲2020년 19건 ▲2021년 10건 ▲2022년 16건 ▲2023년 21건 등 순이다. 2021년 줄었으나 이듬해부터 매년 불어나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등학교에서는 ▲2020년 88건 ▲2021년 102건 ▲2022년 141건 ▲2023년 168건 등 4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심의 건수를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강원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해 발생한 전국 기숙사 학교폭력 전체 심의 건수 총 4건 중 1건 꼴이다. 이어 경북 22건, 경남 19건, 경기 18건, 전남 14건 등 순이었다.

특히 강원 지역 중·고교 기숙사에서는 4년 동안 총 115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심의를 받았다. 그 다음인 전남(60건), 충남(59건) 등과 견줘 2배 가까이 많았다. 강원은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48건 등 기숙사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 3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2020년에는 11건이 발생해 전남(24건), 경북(1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 지역은 산간 지역이 많은 특성상 기숙학교가 더 많아 그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많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게 교육 당국 해석이다. 반대로 지난 4년 간 기숙사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광주다. 지난해 집계된 2건이 전부였다. 정 의원은 “기숙사 학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한 공간에서 생활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며 “일반적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비해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숙사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 전후에도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분리를 위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년 경남 한 지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1학년 학생이 3학년 선배 10명으로부터 1시간 30분 동안이나 집단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아이가 맞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아닌 차라리 다른 곳을 때려 달라’고 애원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당시 기숙사 사감은 이런 폭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출처: 뉴시스, 기도24·365본부 종합).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한1서 4:10-11)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야고보서 3:8)

하나님,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일반적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소식에 주의 공화를 구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을 사람의 힘과 능으로 길들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자신의 죄악 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음세대에 말씀의 빛을 비추소서. 다툼과 분노로 얼룩져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이들의 심령에 죄인을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들려주십시오. 학교와 교사, 부모가 상황의 변화와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본질적인 문제를 살피며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진리의 말씀을 의지케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다음세대가 유일한 소망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서로 사랑하는 주의 뜻 이뤄지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